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김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Eun-Hee Kim(ag0115@c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와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일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19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불안은 평균 2.16±.51점, 공감능력 평균 3.51±.36점, 자아탄력성 2.83±.44점, 임상수행능력은 3.65±.48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r=-.37, p<.001$),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관계($r=.34, p<.001$)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9, p<.001$).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불안,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5.6%($F=21.16, p<.001$)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불안 | 공감능력 | 자아탄력성 | 임상수행능력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The participants were 197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3 to 15, 2017 by taking a survey and analyzed with SPSS WIN 19.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ean score of anxiety was 2.16±.51, empathy was 3.51±.36, ego-resilience was 2.83±.44, and clinical competency was 3.65±.48.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competency by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re wer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anxiety($r=-.37, p<.001$),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empathy($r=.34,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ego-resilience($r=.49, p<.001$). Variables such as ego-resilience, empathy, anxiety,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xplained 35.6% of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se result, there is a need to develop interventions and programs to increase the ego-resilience and empathy and to reduce the anxiety for improving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 keyword : | Anxiety | Empathy | Resilience | Clinical Competency | Nursing Student |

* 본 연구는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22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13일

교신저자 : 김은희, e-mail : ag0115@c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많은 기술의 발전이 보건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따른 보건 의료 환경이 변하면서 간호사 자질의 향상과 대상자 간호에 대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2], 간호대학은 양질의 임상수행능력을 가진 간호사의 배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3].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하고 과학적인 간호 지식체와 임상실무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며[4],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을 토대로 하여 간호지식과 임상실무를 통합하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5]. 임상수행능력은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절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총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함양되며[6] 졸업 후 간호대상자들에게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7].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제한적이나 간호대상자에게 실제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기회와 교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길러지게 되어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므로 임상에 기초한 실습은 간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현장에 노출되면 낯선 환경과 간호대상자, 임상실무자들을 직접 대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여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9].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장애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할 수 없게 하여 간호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10][1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에 많은 간호대상자들을 접하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

로 효율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공감능력이 중요하다[12].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인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13],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간호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문가적 요소가 된다[14]. 또한 공감능력은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역량강화 등에 중요한 자질이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간호교육을 통한 공감능력 함양이 강조되고 있으며[15] 간호교육과정 운영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5].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통제를 효율적으로 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며[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과 임상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17]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지게 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19] 간호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20], 불안이 임상실습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불안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불안이 높았다[21].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20], 임상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22].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임상실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23][24].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17][19][25] 임상실습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19]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이 임상실습 만족과 함께 임상수행능력 증진에 중요하게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17][25], 비파적 사고성향[25]과 공감능력이 높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19][23].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

의 임상실습 시에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20][21], 불안과 간호수행능력[22]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불안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였다. 양선이[23]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을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회귀분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15][25],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을 함께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와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과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97명의 간호대학생이었다. 연구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검정력(1-β)=.95, 유의수준 .05, 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 .15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 결과로 184명이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 197명은 연구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불안

Spielberger[26]의 상태-기질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중 김정택과 신동균[27]이 번안한 20문항의 상태불안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긍정적 문항은“매우 그렇다”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4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배점한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3.2 공감능력

Davis[13]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연도)를 박성희[28]가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희 [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다.

3.3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ER)를 유성경과 심혜원[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심혜원[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3.4 임상수행능력

Schwirian의 Six-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6-D scale)를 기초하여 이원희 등[30]이 개발하고 최미숙[31]이 4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0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미숙[31]의 연구에서 도구 개발 다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 (CUIRB-2017-0078)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가 보고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익명과 정보의 비밀 유지를 약속하였고,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을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15분이었다. 회수된 200부 중 응답내용이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

율은 97.6%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검정은 t-test, one-way ANOVA로 산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97명으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08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54.8%이고 4학년이 45.2%였으며, 여학생이 87.8%이었고 종교는 대상자의 69.0%가 무교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6.9%이었으며,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81.7%의 대상자가 좋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56.9%, 만족하는 경우가 32.0%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 54.8%, 만족하는 경우가 31.0%였다. 실습시 어렸었던 대인관계는 간호사가 6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23.4%였다. 대상자의 학업성적은 평점4.5점 만점에 3.0점 이상 3.5점 미만 41.1%, 3.5점 이상 4.0점 미만이 38.1%였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7)

특성	구분	n(%)
연령	Mean±SD	22.08±1.65
학년	3	108(54.8)
	4	89(45.2)
성별	남	24(12.2)
	여	173(87.8)
종교	유	61(31.0)
	무	136(69.0)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112(56.9)
	기숙사 및 자취	85(43.1)
실습동료와의 관계	좋은 편임	161(81.7)
	보통	36(18.2)
전공만족도	만족함	63(32.0)
	보통	112(56.9)
	만족하지 않음	22(11.2)
임상실습만족도	만족함	61(31.0)
	보통	108(54.8)
	만족하지 않음	28(14.2)
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간호사	126(64.0)
	환자 및 보호자	46(23.4)
	실습동료	13(6.6)
	타분야	12(6.1)
학업성적	3.0 미만	24(12.2)
	3.0 이상-3.5 미만	81(41.1)
	3.5 이상-4.0 미만	75(38.1)
	4.0 이상	17(8.6)

2. 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은 4점 만점에 평균 2.16±.51점,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36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83±.44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48점이었으며, 하위척도는 교육협력이 3.7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호과정 3.71±.49점, 대인관계 3.65±.56점, 전문직 발전 3.60±.54점, 간호기술 3.54±.58점 순이었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N=197)

변수	범주	M±SD
불안		2.16±.51
공감능력		3.51±.36
자아탄력성		2.83±.44
임상수행능력	전체	3.65±.48
	간호과정	3.71±.49
	간호기술	3.54±.58
	교육협력	3.74±.53
	대인관계	3.65±.56
	전문직발전	3.60±.54

M±SD:mean±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은 성별(t=5.61, p=.019), 전공만족도(F=6.68, p=.002) 그리고 임상실습만족도(F=4.78, p=.009)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함’과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함’이 ‘보통’보다,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실습동료와의 관계(t=5.16, p=.024), 전공만족도(F=3.23, p=.042), 임상실습만족도(F=4.25, p=.016)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함’과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5.00, p=.008). 사후검정을 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함’이 ‘보통’거나 ‘만족하지 않음’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F=10.68, p<.001)와 임상실습만족도(F=14.92, p<.0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만족함’이 ‘보통’보다,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3].

4. 대상자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37, p<.001), 공감능력(r=.34, p<.001), 자아탄력성(r=.49,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 (N=197)

특성	구분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학년	3	2,18±.51	.60(.438)	3,54±.36	.16(.687)	2,82±.43	.16(.692)	3,60±.45	.28(.596)
	4	2,14±.50		3,49±.37		2,84±.44		3,71±.50	
성별	남	1,83±.34	5,61(.019)	3,29±.30	1,14(.286)	3,14±.38	.01(.980)	3,77±.48	.11(.736)
	여	2,21±.51		3,55±.36		2,79±.43		3,64±.48	
종교	유	2,14±.53	.05(.826)	3,51±.42	2,40(.123)	2,88±.46	.02(.902)	3,75±.46	.80(.371)
	무	2,17±.50		3,52±.34		2,81±.43		3,60±.48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2,10±.48	1,73(.190)	3,54±.36	.06(.811)	2,87±.44	.15(.700)	3,68±.49	.84(.360)
	기숙사 및 자취	2,23±.53		3,48±.37		2,78±.44		3,62±.46	
실습동료와의 관계	좋은 편임	3,10±.47	1,92(.167)	3,55±.34	5,16(.024)	2,86±.43	.04(.847)	3,69±.45	2,65(.105)
	보통	2,42±.57		3,35±.43		2,72±.45		3,48±.54	
	만족함 ^a	2,01±.51		3,56±.31		2,88±.45		3,83±.47	
전공만족도	보통 ^b	2,19±.46	6,68(.002)	3,52±.36	3,23(.042)	2,82±.37	.79(.454)	3,62±.43	10,68(<.001)
	만족하지 않음 ^c	2,44±.57		3,33±.50		2,76±.67		3,33±.53	
	만족함 ^a	2,03±.53		3,58±.39		2,97±.45		3,88±.47	
임상실습 만족도	보통 ^b	2,18±.46	4,78(.009)	3,52±.31	4,25(.016)	2,78±.36	5,00(.008)	3,60±.42	14,92(<.001)
	만족하지 않음 ^c	2,37±.55		3,34±.46		2,71±.59		3,37±.49	
	간호사	2,15±.50		3,51±.35		2,82±.40		3,62±.49	
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환자 및 보호자	2,14±.46	.21(.893)	3,49±.37	.43(.730)	2,81±.39	.40(.756)	3,67±.42	1,08(.359)
	실습동료	2,23±.70		3,58±.51		2,90±.83		3,82±.45	
	타분야	2,23±.56		3,60±.37		2,93±.47		3,78±.50	
학습성적	3.0 미만	2,23±.60	.73(.533)	3,37±.52	2,05(.108)	2,91±.69	.59(.620)	3,55±.49	1,59(.192)
	3.0 이상-3.5 미만	2,17±.52		3,57±.32		2,83±.36		3,66±.49	
	3.5 이상-4.0 미만	2,16±.44		3,50±.36		2,79±.40		3,63±.46	
	4.0 이상	2,00±.61		3,52±.25		2,90±.51		3,86±.43	

*:Duncan test

표 4.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 능력의 상관관계 (N=197)

변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임상수행능력			
	r(p)	r(p)	r(p)	r(p)
불안	1			
공감능력	-.118 (.098)	1		
자아탄력성	-.51 (<.001)	.24 (.001)	1	
임상수행능력	-.37 (<.001)	.34 (<.001)	.49 (<.001)	1

M±SD:mean±standard deviation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불안,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인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55~.94로 1.0이하이었고,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6~1.8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오차의 자기상관 검정 결과, Durbin-Watson 값이 1.89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85~2.79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불안,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5.6%이었다(F=21.16, p<.001). 영향 요인 중 자아탄력성(β=.33, p<.001)이 높을수록, 공감능력 (β=.22, p<.001)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을 잘 설명하였다[표 5].

표 5.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 (N=197)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1,80	.39		4,67	<.001
자아탄력성	.36	.08	.33	4,69	<.001
공감능력	.29	.08	.22	3,71	<.001
불안	-.12	.07	-.13	-1,88	.062
임상실습만족도*	.15	.08	.15	1,93	.056
전공만족도*	.87	.08	.09	1,09	.273

Adj R²=.356 F=21.16 p=<.001

*Dummy variables: 전공만족도(만족하지 않음=d0, 만족함=d1), 임상실습만족도(만족하지 않음=d0, 만족함=d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조사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불안은 4점 만점에 2.16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측정한 김은영과 양승희[21]의 연구결과 2.1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한상영과 이영미[20]의 연구결과 2.4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이었고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4학년[21], 2학년과 3학년[20]으로 대상자의 학년이 낮을 때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결과의 차이는 있으나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불안이 중정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는 임상실습 시기 후반이었는데 선행연구[21]에서 임상실습을 마친 후 조사한 불안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임상실습 시기 중반에 경험하는 불안[20]이 더 높은 것을 볼 때, 임상실습 전, 중, 후에 걸쳐 종단적으로 간호학생의 불안을 조사하여 불안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안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임상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32],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21]. 또한 임상실습으로 인한 분노와 피로를 경험하게 되어[22]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임상실습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20], 학교와 임상실습기관이 대상자들의 실습에 관련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환경적 불안 요소에 대해 개선 및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양선이[23]의 연구결과 3.0점, 박정화와 정수경[24]의 3.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해 김혜진과 이명선[32]의 연구결과 3.5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임상실습 기간 중에 진행되

어 간호대상자와 접촉이 많았으나, 양선이[23]의 연구에서는 실습이 적은 학년 진급 전 시기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시기가 연구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2.83점이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영숙과 권윤희[15]의 연구와 양선이[23]의 연구결과 2.8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와 도구는 달랐으나 이은경과 박진아[17]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중정도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많은 간호대상자와 의사, 영양사, 병원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대하면서 관련된 업무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간호사가 가져야 하는 기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17].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15], 향후 훌륭한 간호사의 자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교육과정에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을 포함시켜 간호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해 도은수와 서영숙[25]의 연구결과 3.33점, 박영숙과 권윤희[15]의 3.49점과 양선이[23]의 3.4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5][23][25]의 대상자들은 2개 이상의 간호대학생이고 본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환경에 노출되어 임상수행능력의 정도가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부요인에서는 교육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금이와 이보영[33]의 연구에서 교육협력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의 제약적인 상황이 늘어나면서 간호대학생이 직접적인 간호기술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심적부담이 적고[33] 간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전공에 만족하거나 보통인 군이 그렇지 않은 군이 불안이 낮았으며,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군보다, 보통인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불안이 낮았다. 이는 한상영과 이영미[2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와, 손경희와 김남희[3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불안 정도가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선행연구[21][34]에서 여학생의 불안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여 임상실습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와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종교[20], 지원동기, 대학생활만족도[34]가 불안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불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 경험내용과 기간이 달랐으나 학년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상영과 이영미[2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2개 학년의 불안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이 진급하더라도 간호대학생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학년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당국과 함께 학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공감능력이 높았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거나 보통인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이는 양선미[2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공감능력이 높았던 결과와 김해진과 이명선[32]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 성별, 종교에 대한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 선행연구[23][3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간호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2] 간호대학생의 공감교육이 필요하며, 임상

실습을 하기 전부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영숙과 권윤희[15]의 연구와 양선이[2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은경과 박진아[17]의 연구결과에서도 도구는 달랐으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와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여학생보다 높았고[1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17], 학년이 올라갈수록[23]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동일한 조건이나 대상자의 학년이 2학년에서 4학년까지[23], 2학년과 3학년[17], 본 연구는 3학년과 4학년으로 대상자의 표집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가 가진 일반적 특성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15], 동일변수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자아탄력성에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연구된 결과를 간호교육과정 운영에 고려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상실습 적응과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숙과 권윤희[15]의 연구와 김경남[19]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라, 선행연구[15][19][23][25]에서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도구는 달랐으나 이은경과 박진아[17]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와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서 남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거나[15] 여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25], 4학년의 임상수행능력이 3학년 이하보다 높았으며[23][25], 교과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25] 임상수

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겸비한 간호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요소이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행연구[23][25]에서 학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진급함에 따라 임상실습 경험이 증가하고 임상수행능력이 증진될 수 있으므로 향후 학년 진급에 따른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제 변수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불안이 낮을수록,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윤은주와 박영미[22]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불안은 수행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낮출 수 있고[22], 임상실습시에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어[20]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능력은 양선이[23]의 연구와 박정화와 정수경[24]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박영숙과 권윤희[15]의 연구와 이은경과 박진아[1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능력은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13], 자아탄력성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기본적인 능력으로[23]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임상실습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변수는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35.6%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을 가장 높게 설명한 변수는 자아탄력성으로, 이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도은수와 서영숙[25]의 연구와 박영숙과 권윤희[1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최근 다수의 병원에서 취업의 중요한 요소로 실무능력 평가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24]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간호실무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15]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되며, 자아탄력성은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전부터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두번째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정화와 정수경[24]의 연구와 김정아[35]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동일한 변수에 대해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감능력은 간호사가 질적인 간호를 전달하는 위한 매우 바람직한 자질이며 간호대학생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전문적 역량을 증가시키므로[6][14] 간호대학생이 임상간호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불안,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설명력이 높지는 않았으나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불안은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았고, 간호대학생의 불안은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되며 임상수행능력 증진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21][22], 불안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선행연구[15][19][25]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이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동일변수에 대한 반복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일기관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임상실습 후 반부에 자료수집한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 시에는 자료수집 기관의 수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와 다른 임상수행능력의 요인으로는 문제해결과

정[15],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25] 등이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결과는 추후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이론교육에서 학습한 지식체를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구성되므로[17], 간호대학생은 개개인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 초기부터 이론 및 실습수업에 자기주도적으로 임하여 자아탄력성을 키우고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임상실습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간호사를 배출하는 학교당국 뿐 아니라 임상실습기관이 함께 간호대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구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임상수행능력 요인을 고려하여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 평균 평점 2.16/4점, 공감능력 3.51/5점, 자아탄력성 2.83/4점, 임상수행능력 3.65/5점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에 포함된 변수는 불안,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35.6% 설명하였다.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간호교육에 맞게 수정하여 교과 또는 비교과교육에의 적용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임상

과 지역사회의 간호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고 자가보고형태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타 지역, 타 대학과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관과 연구대상자 수를 확장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년과 임상실습 전, 중, 후의 불안, 자아탄력성 및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년 진급에 따른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정현학, 최영임, 이상원,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산업브리프, 제215권, pp.10-214, 2016.
- [2] 고자경, 정명실, 최명애, 박영임, 방경숙, 김정아, 유미수, 장혜영,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간호역량 모델링에 대한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87-96, 2013.
- [3] 박현희, 김윤신, 오인옥, “임상간호사의 간호핵심역량이 간호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7권, 제1권, pp.531-544, 2015.
- [4] M. H. Waldner and J.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4, No.1, pp.1-14, 2007.
- [5] T. Casey and E. Wilson-Evered, “Predicting uptake of technology innovations in online family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n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UTAU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8, No.6, pp.2034-2045, 2012.
- [6] 백민자, 김월주, 류현숙,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 제15권, 제6호, pp.3353-3365, 2013.
- [7] J. W. Distler,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1, pp.53-59, 2007.
- [8] 김미원,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실습교육목표 개발,"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6권, 제2호, pp.389-402, 2006.
- [9] 김정선, 선정주, 김현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체험," *질적연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63-76, 2009.
- [10] 김진일, 이정순,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및 자율신경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02-108, 2011.
- [11]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12] B. Penprase, B. Oakley, R. Temes, and D. Driscoll, "Empathy as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J. of Nursing Education*, Vol.52, No.4, pp.192-197, 2013.
- [13]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Bulletin of the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59, No.4, pp.532-538, 2012.
- [14] C. Ozcan, F. Oflaz, and B. Bakir, "The effect of a structured empathy course on the students of a medical and a nursing school,"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10, p.85, 1980.
- [15] 박영숙,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41-350, 2013.
- [16]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17] 이은경, 박진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93-303, 2013.
- [18] 홍선연,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5797-5804, 2011.
- [19] 김경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스트레스연구*, 제22권, 제2호, pp.55-65, 2014.
- [20] 한상영, 이영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분노 및 피로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554-561, 2012.
- [21] 김은영, 양승희,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17-425, 2015.
- [22] 윤은주, 박영미,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5호, pp.39-45, 2017.
- [23] 양선이,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7권, 제3호(B), pp.1699-1710, 2015.
- [24] 박정화, 정수경,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7698-7707, 2015.
- [25] 도은수, 서영숙,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3-291, 2015.
- [26] C. D. Spielberger,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p.481-491, 1972.
- [27] 김정택, 신동균, *STA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사, pp.69-75, 1978.
- [28] 박성희, *공감과 친사회행동*, 문음사, 1997.
- [29] 유성경, 심혜원,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189-206, 2002.

- [30]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측정도구개발 연구,” 간호학논집, 제13권, pp.17-27, 1990.
- [31] 최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김혜진, 이명선,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37-245, 2015.
- [33] 김금이, 이보영,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885-896, 2014.
- [34] 손경희, 김남희, “간호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불안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2호, pp.577-587, 2018.
- [35] 김정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공감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저 자 소 개

김 은 희(Eun-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8월 : 영남이공대학교 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중앙간호, 임상연구간호